

도농복합지역 기혼여성들의 출산과 성 선호에 대한 인식 및 관련요인

염석헌, 강복수, 김창윤, 이경수, 황태윤, 황인섭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erceptions of Married Women on Childbirth and Sex Preference and Related Factors in Gyeongju, Korea

Seog Heon Youm, Pock-Soo Kang, Chang-Yoon Kim,
Kyeong Soo Lee, Tae-Yoon Hwang, In-Sob Hwang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married Korean women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ir awareness of childbirth-related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s, sex preferences and sex imbalance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453 married women aged 20 or older were randomly selected from four urban districts and five rural districts out of 25 districts in Gyeongju, a consolidated city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South Ko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05 to February 2006. A total of 392 out of 453 questionnaires(86.5% response rate) were collected, and 44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leaving 348 completed questionnaires to be used for data analysis. Age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s below 49, 50-69, 70 or older.

Results: Women's perceptions of marriage were associated with age($p<0.01$). Perceptions about childbirth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age($p<0.01$), type of residential area ($p<0.01$) and education level($p<0.05$). Sex prefer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ge($p<0.05$) and occupation($p<0.01$). Of the respondents aged 49 or younger, 34.8% indicated that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s two, while 25.5% of respondents aged 50 to 69 and 15.3% of respondents aged 70 and 33.7% of respondents aged 70 or older considered four children to be the ideal number. Perceptions of sex imbala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p<0.01$) and occupation($p<0.01$).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cited "economic burden" as the main reason for low birth rat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for all three age groups using male sex prefere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under the assumption that respondents can have only a single child. Socioeconomic status ($p<0.01$) and residential area ($p<0.05$)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those aged 49 or below. Education level($p<0.05$) and residential area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on preferring son in case of having only one child for respondents aged 50 to 69. We did not detect an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in respondents who were 70 or older.

Conclusions: Our results highligh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ies and public education programs to explain the consequences of low birth rates and sex imbalances in Korea. As increasing numbers of women work outside the hom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and employers to provide social and working environments where women do not consider marriage and childbirth to be obstacles to social and business activities.

Key words: Sex preference, Married women, Childbirth, Sex imbalance

* 접수일(2010년 4월 16일), 수정일(2010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26일)

* 교신저자: 이경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Tel: (053) 620-4375, Fax: (053) 653-2061, E-mail: drkslee@ynu.ac.kr

서론

저출산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 1980년 2.83에서 1990년도에는 1.65로 낮아졌고, 2005년도에는 1.08로 낮아져 미국의 2.01, 프랑스의 1.87, 영국의 1.63, 이탈리아의 1.24, 일본의 1.25 등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1].

실제 평균 결혼 연령도 1981년의 남자와 여자 각각 26.4세와 23.2세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30.9세와 27.7세로 남녀 모두 약 4.5년씩 연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2].

2006년에 6대도시 거주자 19-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4%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출산책임감은 2005년도의 조사에 비하여 43%로 다소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혼인 연령과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는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소자녀관의 정착과 저출산 현상이 초래되었다. 출생여아 100명에 대한 출생남아의 수로 표시되는 출생성비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자녀 적게 갖기 운동의 홍보와 정책이 지속된 결과로써, 1980년대 이후 저출산 자녀관이 확산되면서 출생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2][3][4]. 이 결과 1990년에 이르러서는 성비가 116.5로 최고에 달하였으며, 1994년에는 115.2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셋째아기 이상에서의 출생 성비가 205.8에 이르러 출산순위가 낮을 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최고에 이르렀다[1]. 한국보건사회연구원[5]의 연구에서는 총 출생 성비는 1993년에 115.3과 셋째아의 출생 성비도 206.6으로 최고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출생 성비는 1996년부터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7.7로 10년 전인 1995년도의 113.2(영남지역은 115), 5년 전인 2000년도의 110.2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중 영남지방은 109.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구에서도 2000-2004년까지의 전국 평균 출생성비는 109.2명인데 비하여 경상북도는 112.8,

대구광역시는 112.4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6].

고출산 시대에는 부부가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되고, 그 중 적어도 1-2명의 남아를 출산함으로써 강한 남아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성비는 자연수준인 106에 근접하였다[4][7].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점차 도시화, 산업화되어 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소자녀관을 바탕으로 하여 이상자녀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아출산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8]. 인공임신중절을 통한 인위적 아들 출산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가임여성 1인당 임신 4회 중 약 2회 정도는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9], 40대 후반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3분의 2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10]. 인공임신중절을 통한 인위적 아들 출산은 윤리성의 문제, 출산여성에 대한 보건학적 문제, 성비 불균형의 심화로 야기되어지는 사회학적인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과 출생 성비 불균형이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부족으로 보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2][7]. 가치관의 변화가 출생 성비 불균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결혼과 출산, 남아선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비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20세 이상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 출산 및 저출산과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 성선호도와 선호 이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성선별 강요 경험률을 분석하여 성선호의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남아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성비불균형을 개선하고 건전한 출산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보건교육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도농복합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의 25개 읍·면·동을 층화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 4개 동과 5개 읍·면지역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읍·면·동 지역에서 다시 통·리를 무작위로 20세 이상 여성 500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타 지역 취업자 등의 장기출타에 의한 미거주자, 상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의 등재자 등을 제외한 453명의 조사대상자 중 392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조사가 불완전한 설문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348명이다. 미조사자는 조사대상자 중 응답거부자와 3-6회 방문하여 면담이 불가능한 대상자였다.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결혼관, 자녀 출산관, 저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 성선호도와 성선호 이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 성선별 출산 강요 경험, 강요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와 실제 출산 경험 등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거주지역, 주관적 경제상태, 교육수준, 직장 등을 조사하였고, 거주지역의 ‘동’은 도시로, ‘읍/면’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1, 2차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1차 조사는 경주지역 보건의학계열 대학생 1, 2학년으로 20명의 조사자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담당지역을 2005년 12월 1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선호도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들이 임의로 정의하였다.

$$\text{성선호도}(\%) = \frac{\text{자녀가 한명만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아들 또는 딸을 원하는 수}}{\text{응답자 수}} \times 100(\%)$$

성선별 출산의 의미는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초음파 및 양수천자, 용모막 생검 등을 이용하여 태아의 성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안 후 원치 않는 성(딸)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아들일 경우만

출산하는 경우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전산 입력한 후 SPSS12.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 χ^2 -test, Fisher's exact test,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50-69세’가 46.2%였고, 도시지역이 41.1%, 농촌지역이 58.9%였다. 경제상태는 ‘상’이 26.1%, ‘중’이 27.3%, ‘하’가 46.6%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56.1%, 중졸이 17.5%, 고졸 이상이 26.4%였다. 직업은 ‘있다’가 42.0%, ‘없다’가 58.0%였다(Table 1).

2. 자녀출산에 관한 인식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의 경우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 별로는 ‘하’가 76.5%,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77.9%, 도시나 농촌지역에 상관없이 약 70%,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약 70%였다. 연령($p<0.01$), 거주지역($p<0.01$), 교육수준($p<0.05$)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2). 자녀의 수에 제한 없이 아들과 딸의 성선호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 거주지역, 경제상태, 교육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아들+딸’이 많았으며, 조사시 설문지 구성에는 ‘딸만 선호한다’는 응답 보기가 있었으나, 응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연령($p<0.05$)과 직업 유무($p<0.01$)와 성선호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3).

3.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연령대별로는 49세 이하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가 46.2%, 경제상태 별로는 ‘하’가 52.5%, 교육수준은 중졸이 47.5%, 직업은 ‘있다’가 54.1%로 그룹별로 ‘문제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상태와 직업 유무에 따른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o, of subjects(%)
Age(yrs.)	
≤ 49	89(25.6)
50-69	161(46.2)
≥ 70	98(28.2)
Residential area	
Urban	143(41.1)
Rural	205(58.9)
Socioeconomic status	
High	91(26.1)
Middle	95(27.3)
Low	162(46.6)
Educational level	
Primary school	195(56.1)
Middle school	61(17.5)
High school or more	92(26.4)
Employment status	
Employed	146(42.0)
Unemployed	202(58.0)
Total	348(100.0)

Table 2. Attitude of having a child by demographic

Unit: No.(%)

Characteristics	Must have	Better to have	No matter not to have	No idea	Total
Age(yrs.)[†]					
≤ 49	50(56.2)	21(23.6)	14(15.7)	4(4.5)	89(100.0)
50-69	115(71.4)	30(18.6)	9(5.6)	7(4.3)	161(100.0)
70 ≤	79(80.6)	9(9.2)	7(7.1)	3(3.1)	98(100.0)
Residential area[†]					
Urban	101(70.6)	31(21.7)	11(7.7)	0(0.0)	143(100.0)
Rural	143(69.8)	29(14.1)	19(9.3)	14(6.8)	205(100.0)
Socioeconomic status					
High	62(68.1)	20(22.0)	6(6.6)	3(3.3)	91(100.0)
Middle	58(61.1)	19(20.0)	12(12.6)	6(6.3)	95(100.0)
Low	124(76.5)	21(13.0)	12(7.4)	5(3.1)	162(100.0)
Educational level[*]					
Primary school	152(77.9)	26(13.3)	11(5.6)	6(3.1)	195(100.0)
Middle school	39(63.9)	11(18.0)	9(14.8)	2(3.3)	61(100.0)
High school or more	53(57.6)	23(25.0)	10(10.9)	6(6.5)	92(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103(70.5)	24(16.4)	15(10.3)	4(2.7)	146(100.0)
Unemployed	141(69.8)	36(17.8)	15(7.4)	10(5.0)	202(100.0)

* p<0.05

†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Preference of sex by demographic without considering the number of children

Characteristics	Son only	Son and daughter	Neither	No idea	Total
Unit: No.(%)					
Age(yrs.)*					
≤ 49	4(4.5)	56(62.9)	2(2.2)	27(30.3)	89(100.0)
50-69	3(1.9)	133(82.6)	2(1.2)	23(14.3)	161(100.0)
70 ≤	0(0.0)	78(79.6)	3(3.1)	17(17.3)	98(100.0)
Residential area					
Urban	1(0.7)	111(77.6)	4(2.8)	27(18.9)	143(100.0)
Rural	6(2.9)	156(76.1)	3(1.5)	40(19.5)	205(100.0)
Socioeconomic status					
Upper	1(1.1)	66(72.5)	4(4.4)	20(22.0)	91(100.0)
Middle	2(2.1)	68(71.6)	2(2.1)	23(24.2)	95(100.0)
Lower	4(2.5)	133(82.1)	1(0.6)	24(14.8)	162(100.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3(1.5)	156(80.0)	3(1.5)	33(16.9)	195(100.0)
Junior high school	2(3.3)	49(80.3)	1(1.6)	9(14.8)	61(100.0)
High school or more	2(2.2)	62(67.4)	3(3.3)	25(27.2)	92(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7(4.8)	115(78.8)	2(1.4)	22(15.1)	146(100.0)
Unemployed	0(0.0)	152(75.2)	5(2.5)	45(22.3)	202(100.0)

* p<0.05

†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4. Perception on sex imbalan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rious	Not serious	No idea	Total
Unit: No.(%)				
Age(yrs.)[†]				
≤ 49	47(52.8)	26(29.2)	16(18.0)	89(100.0)
50-69	67(41.6)	59(36.6)	35(21.7)	161(100.0)
70 ≤	40(40.8)	26(26.5)	32(32.7)	98(100.0)
Residential area				
Urban	66(46.2)	39(27.3)	38(26.6)	143(100.0)
Rural	88(42.9)	72(35.1)	45(22.0)	205(100.0)
Socioeconomic status				
Upper	29(31.9)	29(31.9)	33(36.3)	91(100.0)
Middle	40(42.1)	41(43.2)	14(14.7)	95(100.0)
Lower	85(52.5)	41(25.3)	36(22.2)	162(100.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84(43.1)	61(31.3)	50(25.6)	195(100.0)
Junior high school	29(47.5)	19(31.1)	13(21.3)	61(100.0)
High school or more	41(44.6)	31(33.7)	20(21.7)	92(100.0)
Employment status*				
Employed	79(54.1)	45(30.8)	22(15.1)	146(100.0)
Unemployed	75(37.1)	66(32.7)	61(30.2)	202(100.0)

* p<0.01 by Chi-square test

† p=0.062

4.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구분 없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50세 이상에서는 60% 가량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49세 이하 군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하는 편이 좋다’가 37.1%로 더 많아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결혼 적령기에 대해 49세 이하 군에서는 ‘25-29세’, ‘30-34세’가 각각 44.9%, 50-69세 군에서는 ‘30-34세’ 51.6%, 70세 이상은 ‘25-29세’가 4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25-29세’가 가장 많았다. 연령군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5).

5.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

자녀 출산 견해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9세 이하가 56.2%, 50-69세가 71.4%, 70세 이상이 80.6%로 연령군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좋다’는

의견이 49세 이하 23.6%, 50-69세 18.6%, 70세 이상이 9.2%였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는 49세 이하의 경우 ‘2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50-69세는 ‘4명’이 35.4%, 70세 이상은 ‘4명’이 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적인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49세 이하의 경우 2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50-69세와 70세 이상은 4명이 각각 35.4%와 33.7%로 가장 많았다. 연령군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6).

저출산 원인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출산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해 ‘대체로 있다’는 의견이 연령군 관계없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인식(p<0.05)은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7).

Table 5. Attitude of marriage and marriageable age by age group Unit: No.(%)

Items	≤ 49	50-69	70 ≤	Total
Marriage*				
Must marry	27(30.3)	95(59.0)	61(62.2)	183(52.6)
Better to marry	33(37.1)	35(21.7)	19(19.4)	87(25.0)
No matter what to do	20(22.5)	20(12.4)	14(14.3)	54(15.5)
Better not to marry	3(3.4)	4(2.5)	0(0.0)	7(2.0)
No idea	6(6.7)	7(4.3)	4(4.1)	17(4.9)
Marriageable age of men(yrs.)				
20-24	3(3.4)	1(0.6)	3(3.1)	7(2.0)
25-29	40(44.9)	61(37.9)	44(44.9)	145(41.7)
30-34	40(44.9)	83(51.6)	39(39.8)	162(46.6)
35 or more	2(2.2)	3(1.9)	0(0.0)	5(1.4)
No idea	4(4.5)	13(8.1)	12(12.2)	29(8.3)
Marriageable age of women(yrs)				
20-24	11(12.4)	11(6.8)	13(13.3)	35(10.1)
25-29	62(69.7)	117(72.7)	65(66.3)	244(70.1)
30-34	12(13.5)	20(12.4)	7(7.1)	39(11.2)
No idea	4(4.5)	13(8.1)	13(13.3)	30(8.6)

* p<0.01 by Fisher’s exact test

Table 6. Attitude of having a child and the number of children by age group Unit: No.(%)

Items	≤ 49	50-69	70 ≤	Total
Having a child*				
Must have	50(56.2)	115(71.4)	79(80.6)	244(70.1)
Better to have	21(23.6)	30(18.6)	9(9.2)	60(17.2)
No matter not to have	14(15.7)	9(5.6)	7(7.1)	30(8.6)
No idea	4(4.5)	7(4.3)	3(3.1)	14(4.0)
Ideal number of children(No.)*				
1	3(3.4)	2(1.2)	0(0.0)	5(1.4)
2	31(34.8)	41(25.5)	15(15.3)	87(25.0)
3	12(13.5)	31(19.3)	19(19.4)	62(17.8)
4	13(14.6)	57(35.4)	33(33.7)	103(29.6)
5 ≤	1(1.1)	5(3.1)	11(11.2)	17(4.9)
None/No idea	29(32.6)	25(15.5)	20(20.4)	74(21.3)

*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7. Perception on low birth status in Korea by age group Unit: No.(%)

Items	≤ 49	50-69	70 ≤	Total
Reasons of low birth				
Social trend	12(13.5)	20(12.4)	14(14.3)	46(13.2)
Economic burden	54(60.7)	107(66.5)	53(54.1)	214(61.5)
Difficulties of bringing up	7(7.9)	12(7.5)	8(8.2)	27(7.8)
Increased number of unmarried women	3(3.4)	5(3.1)	1(1.0)	9(2.6)
Others	0(0.0)	1(0.6)	2(2.0)	3(0.9)
No idea	13(14.6)	16(9.9)	20(20.4)	49(14.1)
Low birth status in Korea*				
Very low	17(19.1)	20(12.4)	6(6.1)	43(12.4)
Low	52(58.4)	91(56.5)	56(57.1)	199(57.2)
Moderate	7(7.9)	15(9.3)	4(4.1)	26(7.5)
High	0(0.0)	0(0.0)	1(1.0)	1(0.3)
No idea	13(14.6)	35(21.7)	31(31.6)	79(22.7)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low birth†				
None	12(13.5)	13(8.1)	7(7.1)	32(9.2)
Rare	20(22.5)	31(19.3)	11(11.2)	62(17.8)
Moderately	28(31.5)	48(29.8)	39(39.8)	115(33.0)
Strongly	9(10.1)	31(19.3)	10(10.2)	50(14.4)
No idea	20(22.5)	38(23.6)	31(31.6)	89(25.6)

* p<0.05 by Chi-square test

† p=0.059

여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41.7%, ‘반대한다’는 의견이 39.4%로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자녀가 한명인 경우 선호하는 성별로는 49세 이하의 ‘성별은 상관없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고, 50-69세와 70세 이상은 ‘아들이 좋다’는 의견이 각각 49.7%, 60.2%로 가장 많았다.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심각한 현상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는 49세 이하에서는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으나, 50세 이상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군과 자녀가 한명인 경우의 선호 성별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8).
 아들의 필요성의 경우 49세 이하의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포함)’는 의견이 49.5%로 가장 많았

으며, 50-69세와 70세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7.8%, 57.1%로 50세 이상의 연령이 아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의 그 이유로는 49세 이하의 경우 심리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5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가 각각 48.8%, 64.9%로 가장 많았다. 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49세 이하의 경우 ‘아들보다 딸이 낫기 때문’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5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키우는 재미가 좋아서’가 각각 36.6%, 28.8%로 가장 많았다. 연령군과 아들의 필요성과 이유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p<0.01$), 딸의 필요성($p<0.05$), 필요한 이유($p<0.01$)도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8. Attitude of sex selective birth and perception on sex imbalance by age group

Items	Unit: No.(%)			
	≤ 49	50-69	70 ≤	Total
Sex selective birth				
Strongly oppose	33(31.7)	66(41.0)	44(44.9)	143(41.7)
Oppose	39(43.8)	63(39.1)	35(35.7)	137(39.4)
Agree	3(3.4)	1(0.6)	1(1.0)	5(1.4)
No idea	14(15.7)	31(19.3)	18(18.4)	63(18.1)
Preferring sex in case of having only one child*				
No matter	55(61.8)	60(37.3)	29(29.6)	144(41.4)
Son	16(18.0)	80(49.7)	59(60.2)	155(44.5)
Daughter	10(11.2)	10(6.2)	3(3.1)	23(6.6)
No idea	8(9.0)	11(6.8)	7(7.1)	26(7.5)
Sex imbalance†				
Serious	47(52.8)	67(41.6)	40(40.8)	154(44.3)
Not serious	26(29.2)	59(36.6)	26(26.5)	111(31.9)
No idea	16(18.0)	35(21.7)	32(32.7)	83(23.9)
Sex imbalance in future‡				
Get worse	27(30.3)	38(23.6)	20(20.4)	85(24.4)
Get better	18(20.2)	38(23.6)	25(25.5)	81(23.3)
Keep current status	18(20.2)	19(11.8)	8(8.2)	45(12.9)
No idea	26(29.2)	66(41.0)	45(45.9)	137(29.4)

* $p<0.01$ by Chi-square test

† $p=0.062$

‡ $p=0.072$

Table 9. Attitude of preference of sex by age group Unit: No.(%)

Items	≤ 49	50-69	70 ≤	Total
Son[†]				
Must have	12(13.5)	77(47.8)	56(57.1)	145(41.7)
Better to have	32(36.0)	50(31.1)	20(20.4)	102(29.3)
No matter what to have	20(22.5)	16(9.9)	10(10.2)	46(13.2)
No matter not to have	7(7.9)	1(0.6)	2(2.0)	10(2.9)
No idea	18(20.2)	17(10.6)	10(10.2)	45(12.9)
Reasons of preferring son[†]				
run in one's blood	15(34.1)	61(48.8)	48(64.9)	124(51.0)
Be dependable	19(43.2)	26(20.8)	6(8.1)	51(21.0)
Get support after being old	6(13.6)	20(16.0)	14(18.9)	40(16.5)
Pay tribute to ancestors	0(3.2)	11(8.8)	5(6.8)	16(6.6)
Be harmonious in family	2(4.5)	5(4.0)	1(1.4)	8(3.3)
Get economic support	2(4.5)	2(1.6)	0(0.0)	4(1.6)
Daughter[*]				
Must have	11(12.4)	47(29.2)	29(29.6)	87(25.0)
Better to have	40(44.9)	67(41.6)	46(46.9)	153(44.0)
No matter what to have	18(20.2)	28(17.4)	13(13.3)	59(17.0)
No matter not to have	6(3.9)	9(4.9)	9(4.9)	15(4.4)
No idea	15(16.9)	13(8.1)	6(6.1)	34(9.8)
Reasons of preferring daughter[†]				
Get lots of joy in bringing up	11(21.6)	41(36.6)	21(28.8)	73(30.9)
Be dependable	15(29.4)	26(23.2)	15(20.5)	56(23.7)
Like daughter than son	16(31.4)	18(16.1)	6(8.2)	40(16.9)
Be harmonious in family	7(13.7)	13(11.6)	11(15.1)	31(13.1)
Get support after being old	1(2.0)	11(9.8)	14(19.2)	26(11.0)
Get economic support	1(2.0)	2(1.8)	3(4.1)	6(2.5)
Others	0(0.0)	1(0.9)	3(4.1)	4(1.7)

* p<0.05

† p<0.01 by Chi-square test

6. 남아 출산 강요 경험

조사대상자 중 남아출산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39.7%였으며, 연령별로는 49세 이하 24.7%, 50-69세 42.9%, 70세 이상 48.0%로 연령이 높을수록 강요 경험률이 더 높았다. 남아 출산 강요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49세 미만은 한명도 없었으며, 50-69세 3.0%, 70세 이상 8.5%였다. 남아출산 강요자는 49세 이하는 시어머니 45.5%, 시아버지 36.4%, 친정어머니 27.3%, 남편 18.2% 순이었고, 50-69세는 시어머니 66.7%, 시아버지 34.8%, 기타 19.7%순이었으며, 70세 이상은 시어머니 84.8%, 시아버지 54.3%, 친정어머니 13.0%, 남편 10.9%순이었다. 남아 출산 강요에 대한 스트

레스 정도는 ‘약간 받았다’는 의견이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장 많았다. 연령군에 따른 남아출산 강요 경험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Table 10).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남아 선호 여부 종속변수로 하여, 49세 이하군과 50-69세, 70세 이상군에서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9세 이하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p<0.05)와 거주지역(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R^2=0.334$), 50-69세에서는 교육수준(p<0.05), 거주지역(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R^2=0.164$), 70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R^2=0.073$)(Table 11).

Table 10. Experience of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s) to son and the intention of sex selective birth and subjective stress Unit: No.(%)

Items	≤ 49	50-69	70 ≤	Total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 to son*				
Yes	22(24.7)	69(42.9)	47(48.0)	138(39.7)
No	67(75.3)	92(57.1)	51(52.0)	210(60.3)
Intention of sex selective birth due to being pressured				
Yes	0(0.0)	2(3.0)	4(8.5)	6(4.3)
No	22(100.0)	67(97.0)	43(91.5)	132(95.7)
Person pressuring to give birth to son†				
Mother in law	10(45.5)	44(66.7)	39(84.8)	93(69.4)
Father in law	8(36.4)	23(34.8)	25(54.3)	56(41.8)
Mother her own	6(27.3)	10(15.2)	6(13.0)	22(16.4)
Father her own	1(4.5)	3(4.5)	3(6.5)	7(5.2)
Husband	4(18.2)	6(9.1)	5(10.9)	15(11.2)
Relatives	2(9.1)	3(4.5)	1(2.2)	6(4.5)
Others	1(4.5)	13(19.7)	3(6.5)	17(12.7)
Subjective stress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 to son				
High	4(18.2)	9(13.0)	11(23.4)	24(17.4)
Moderate	10(45.5)	25(36.2)	20(42.6)	55(39.9)
Rare	5(22.7)	13(18.8)	8(17.0)	26(18.8)
None	3(13.6)	14(20.3)	5(10.6)	22(15.9)
No idea	0(0.0)	8(11.6)	3(6.4)	11(8.0)

* p<0.01 by Chi-square test

† multiple response

Table 11. Logistic regression on preferring son in case of having only one child according to age group

Variables	B	S.E	Wald	p-value
≤ 49(yrs.)(R²=0.334)				
Educational level (under middle school=0, high school or more=1)	-0.896	0.670	1.788	0.408
Socioeconomic status (under middle=0, high=1)	1.833	0.709	6.685	0.010
Residential area (rural=0, urban=1)	-1.566	0.744	4.436	0.035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 to son (No=0, Yes=1)	1.136	0.759	2.239	0.135
Constant	-1.457	0.731	3.975	0.046
50-69(yrs.)(R²=0.164)				
Educational level (under middle school=0, high school or more=1)	-1.156	0.521	4.929	0.026
Socioeconomic status (under middle=0, high=1)	0.512	0.349	2.145	0.143
Residential area (rural=0, urban=1)	-0.999	0.354	7.970	0.005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 to son (No=0, Yes=1)	0.051	0.346	0.022	0.882
Constant	0.302	0.323	0.872	0.351
70 ≤(yrs.)(R²=0.073)				
Educational level (under middle school=0, high school or more=1)	-1.169	1.279	0.836	0.360
Socioeconomic status (under middle=0, high=1)	0.195	0.474	0.170	0.680
Residential area (rural=0, urban=1)	-0.832	0.513	2.635	0.105
Being pressured to give birth to son (No=0, Yes=1)	0.012	0.487	0.001	0.980
Constant	0.648	0.482	1.807	0.179

고 찰

경주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1998년도에 유사한 조사가 수행된 적이 있는 지역이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 남아를 선호하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자녀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약 85% 이상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11]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본부가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에 실시하였던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91%로 나타나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거주지역이나 경제상태,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의 제한이 없는 경우 개인의 특성과 성선호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 유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49세 이하의 62.9%와 고졸 이상의 67.4%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성의 70% 이상에서 아들과 딸을 모두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들과 딸을 모두 둘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들만 두고자 하는 비율은 2.0%였으며, 이 결과는 동일한 경주 지역의 15-49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1998년도에 조사한 연구결과[12]에서 아들만 두고자 하는 비율 12.7%에 비하여 매우 낮아진 결과로써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약 77.6%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11]의 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해 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도농복합지역의 거주자가 대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

하여 결혼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11]의 조사 결과에서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4.2%, 미혼 남녀의 경우는 62.7%를 차지하고 있어 일과 결혼, 출산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이 직업을 갖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

남자의 결혼 적령기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 남자는 30-34세가 46.6%, 25-29세가 41.7%였고, 여자는 25-29세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건복지부[11]의 조사에서의 남자 30-34세 65.2%, 여자 25-29세 77.5%와 비슷한 경향이나, 이 연구에서는 남자의 결혼 적령기가 25-29세라는 의견도 많아서 결혼지연에 대해서는 대도시 지역보다는 도농복합지역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77.3%를 차지하였는데,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11]의 조사에서의 적정자녀수가 2명 이상이라는 응답 80.6%보다 약간 낮았다. 연령군 별로 보았을 때에는 49세 이하는 2명이 34.8%였고, 5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4명을 이상자녀의 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컸다. 이 결과로 볼 때 젊은 연령군의 저출산도 괜찮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과 소자녀 출산의 사회적 풍조를 꼽았고, 사회활동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은 8.0%에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11] 조사에서는 저출산이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활동과 출산을 연관시켜 지역 간에 차이도 컸다.

성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은 강한 남아 선호사상인데, 진 등[13]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9.4%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0.6%였고 조 등[14]이 15-44세의 유배우 부인들을 대상으로 아들 선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1991년에는 40.5%이던 것이 1997년에는 24.8%로 감소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소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비 불균형 현상과 성선별 출산 등에 대한 의향과 실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비 불균형 및 성선별 출산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성선택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저출산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출산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는 약 47.4%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11]의 조사에서의 미혼남녀 및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출산 책임감이 43%인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 32-48%였으며, 이는 1998년도 경주지역에서의 연구[12]에서의 약 68-85%와 비교해 볼 때,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1998년도 조사[12]에서는 연령과 거주 지역, 교육수준별, 직업 유무 등에 따라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상태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많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를 잇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노후에 봉양을 받기 위해서’순으로 나타나 진 등[13]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Kim 등[8]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된 ‘87 동태 특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 결과와 일치하여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남아선호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딸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키우는 재미가 좋아서’, ‘심리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순이었는데, 이 결과는 1998년도의 조사결과[12]와 같았다.

자녀가 한명인 경우 아들선호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9세 이하 연령 군에서는 경제 상태와 거주지역이 유의한 변수였고, 50-69세에서는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전술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한명의 자녀를 둘 경우를 가정한 남아 선호사상은 농촌지역이 강하였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농촌지역의 장래문화와 생활방식 등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한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지만, 결혼의 지연과 저 출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도농복합의 중·소도시에서 시행된 연구로서 대도시와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젊은 연령과 대도시의 경우는 결혼, 출산, 저 출산 및 성 선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시행해 볼 만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로서는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순위에서의 성선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 자녀관을 개선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과 홍보의 우선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직장생활과 결혼, 출산 등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속화 될 것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의 출산 등이 직장생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아들 출산을 위한 강요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인공임신중절 시행의 고리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현행대로 시행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이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지역의 20세 이상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자녀 출산 관, 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성선택도 및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성선별 강요 경험률과 남아 출산에 대한 강요와 인위적 성선별 출산 의도와와의

관련성 및 저 출산과 성 선호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경주시의 25개 읍·면·동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 4개 동과 5개 읍·면지역을 임의로 추출한 453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92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한 설문조사를 제외한 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령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p < 0.01$),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은 연령($p < 0.01$), 거주 지역($p < 0.01$), 그리고 교육수준($p < 0.05$)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자녀의 수의 제한 없다는 가정 하에 아들 또는 딸에 대한 성 선호에 대한 응답은 연령($p < 0.05$) 및 직업 유무($p < 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는 49세 이하는 ‘2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50-69세 군과 70세 이상군에서는 ‘4명’이 각각 35.4%, 33.7%였다.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경제상태($p < 0.01$) 및 직업 유무($p < 0.01$)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저 출산 원인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남아 선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49세 이하의 군과 50-69세, 70세 이상의 군으로 구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9세 이하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p < 0.01$)와 거주 지역($p < 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50-69세에서는 교육수준($p < 0.05$), 거주 지역($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출산순위가 낮은 출생아의 성선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소 자녀관을 개선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과 홍보의 우선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생활과 결혼, 출산 등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고, 사회 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속화 될 것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의 출산 등이 직장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를 위한 조사가 눈보라가 심하였던 추운 겨울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심으로 협조해 주셨던 경주시 김미경 보건소장님과 도와 주셨던 보건소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2. Lee SS. A Study of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6;26(2): 95-140 (Korean)
3. Kim HG. Determinants of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Among Married Women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aegu & Bay Area in California, USA. *Korean Population Association* 1997;20(1):65-96 (Korean)
4. Kim HG, Lee MK. Son Preference and Factors of Efforts for Seeking at Least One Son Among Multipara in Taegu. *Korean Population Association* 1999;22(2):73-96 (Korean)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6. 매일신문사. 눈앞에 닥친 성비 불균형. 매일신문 2007년 5월 25일
7. Lee S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Fetal Sex Screen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1;21(2): 83-104 (Korean)
8. Kim IH, Choi BH, Lee S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1990;10(1): 56-82 (Korean)
9. 임종권.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실태 고찰. *인구보건논집* 1988;8(2):8-12
10. 공세권, 성애달, 김승권, 손성희.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도자료 2006년 11월 22일.
12. Kang PS, Yun SH, Lee KS, Kim SB, Kang YA, Hwang TY, Kim MK. A Study on Sex Preference, Cognition of Sex Difference and Experience about Forced Sex Selection of the Reproductive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1;5(1):7-15 (Korean)
13. 진기남,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김수련. 성인의 성의식 및 성 선호도 조사연구-기혼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12-77
14. 조남훈, 김승권, 조애정, 장영식, 오영희.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92-207